교육복지사업 운영학교 대상 컨설팅 실시

도교육청, 오늘부터 28일까지 신규 학교 · 재구조화 시범학교 등 13교 진행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은 신규 지정학교와 사업전문인력 재배치 학교, 사업재구조화 시범학교 등 13교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28일까지 2주 동안 진행한다.

이번 컨설팅에는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6명 등 9명의 위원이 참여해 △학교 구성원들의 사업의지와 협력 △시스템 구축 △학생의 체계적 관리 △학생 중심 프로그램 운영 △학교 공동체 문화 조성 △지역사회 연계 △예산 집행 등과 관련한 컨설팅을 해줄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저소득층학생 수 및 비율을 기준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사업학교'와 '연계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업학교는 131교, 연계학교(지정형)는 114교이며 지정 기간은 사업학교 3년, 연계학교 2년(시)~1년(농어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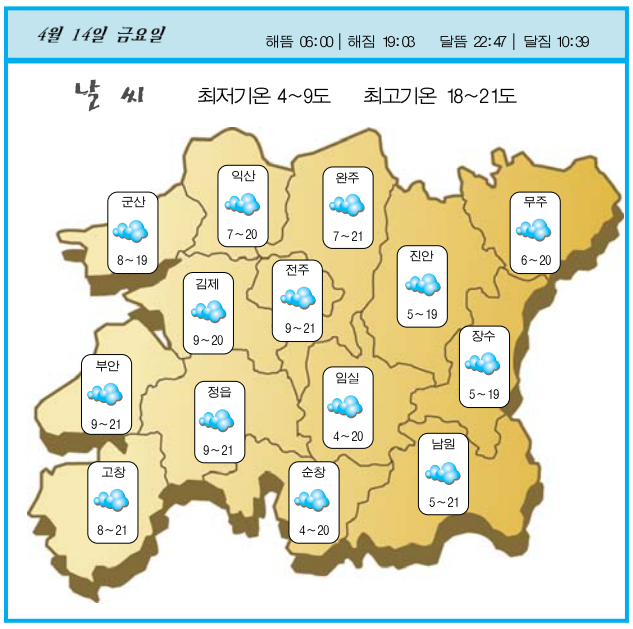
지정 기준은 사업학교의 경우 초·중학교는 저소득층 학생 수 65명 이상이거나 전교생 수 100명 이상인 학교 중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25% 이상인 시지역 학교다.

고등학교는 저소득층 학생 수가 220명 이상인 특성화고가 대상이다. 연계학교는 시지역이 저소득 학생 수가 30~64명인 학교이고, 농어촌은 저소득 학생 수가 20~64명인 읍·면지역 학교(지정형) 또는 저소득 학생 수가 20명 미만인 읍·면지역 학교 중 신청학교(신청형)를 지정한다.

지역별 지정 현황은 △전주 87교(사업 55·연계 32) △군산 34교(사업 21·연계 13) △익산 40교(사업 22·연계 18) △정읍 18교(사업 12·연계 6) △남원 13교(사업 8·연계 5) △완주 16교(사업 4·연계 12) △고창 6교(사업 1·연계 5) △부안 6교(사업 2·연계 4) △임실 3교(연계 3) △순창 1교(연계 1) △진안 1교(연계 1) △무주 4교(연계 4) △장수 3교(연계 3) 등이다.

/정해은 기자

고인돌유적지 유채꽃 만개 세계유산 고창고인돌유적지 앞 2만6000㎡에 유채꽃이 만개해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화사한 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게 하고 있다. 노랗게 만개한 유채꽃밭은 고인돌박물관과 선사체험마을, 고인돌유적과 운곡습지로 이어지는 역사·문화·생태 탐방을 더욱 빛내준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 '4차산업혁명' 세미나 개최

전북교육정책연구소(소장 전을석)가 4차산업혁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연구소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에 대한 다양한 교육담론을 분석하고 미래교육 담론을 논의하기 위해 21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전북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열리며 '4차 산업혁명의 실체와 교육에 나타날 변화는?' 주제로 교육전문직과 일반 공무원들이 참여한다.

김상민 동양미래대학교 로봇공학부 겸임교수와 이현 참교육연구소장이 주제 발제를 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 ▲미래교육 등 교육분야 담론 분석 등을 놓고 토론을 하게 된다.

/정해은 기자

전주한식당, 미슐랭가이드 도전한다

미슐랭가이드 스타 레스토랑 벤치마킹
테이블웨어 등 시설 둘러보고 주방 견학

세계 최고 권위의 미식여행가이드북인 미슐랭가이드에 도전장을 낸 전주 한식당들이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처럼 맛과 서비스의 품격을 높이기로 했다.

전주시는 13일 미슐랭가이드 도전 전주한식당 9곳의 오너쉐프들과 서울 미슐랭가이드 스타 레스토랑 2곳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날 참여한 전주한식당 오너쉐프들은 미슐랭스타 레스토랑의 메뉴와 맛, 서비스를 경험하고, 테이블웨어와 인테리어와 아웃테리어 등 시설을 둘러보고 직접 주방을 견학했다.

또, 오너쉐프와의 현장 간담회를 갖고 질의응답을 실시하는 등 미슐랭스타 레스토랑이 되기 위한 실질적인 배움과 경험의 기회가 됐다.

특히, 식당에서 성역과 같은 주방을 엿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식사예약만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미슐랭스타 레스토랑의 주방을 엿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는 도전업소에 큰 도움이 됐다.

실제로 도전에 참여한 전주의 한 오너쉐프는 "미슐랭가이드 스타 레스토랑은 예약도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할 만큼 콧대가 높은 곳인데, 주방 공개는 물론 오너쉐프와의 현장 간담회까지 경험 할 수 있다는게 놀랍다"라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다른 온너쉐프는 "맛은 차지하고 스타레스토랑의 분위기나 인테리어, 소품 등에 위화감을 느꼈다. 규모나 시설, 시스템 등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 만만치는 않겠지만 해 볼 만 하다"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컨설팅 전문가로 참여한 전효진 교수(전주대학교)는 "미슐랭가이드 스타 레스토랑 선정은 단순히 맛으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니며, 고객 응대 서비스, 전반적 분위기 등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과 같이 이번 견학을 통해 얻어지는 경험이 실질적인 미슐랭가이드 도전 업체들의 도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도전 업체들은 이번 경험에서 박탈감이나 좌절 또는 동기 부여의 갈림길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시작이 반이다. 이번기회를 통해 자신들의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장점 및 단점 등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을 스스로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자기 진단은 일보 전진의 가장 큰 핵심이다. 이번 벤치마킹을 시작으로 도전 업체 스스로가 판단한 문제점 등을 토론하고, 추후 진행되는 맞춤형 컨설팅과 솔루션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북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념전시회 개최

'응고-노란바다' 등 30명의 전북지역 작가들 작품 45점 전시

전북도교육청은 제3주기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념행사 기간을 맞아 전북도 미술작가들의 세월호참사 추모작품을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월호추모 전시회는 강용편 작가의 '응고-노란바다' 등 30명의 전북지역 작가들 작품 45점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내일 오후 5시 도교육청 1층 갤러리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 전시 참여작가 등과 함께 개막식을 갖는다.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과 도내 서른 명의 작가들이 4.16세월호참사 3주기 추념 전시회를 함께 준비했다"며 "전북지역 미술 작가들의 세월호 참사 추모작품을 통해 참사로 희생된 모든 이들을 기억하고 애도하기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6월 15일까지 도교육청 1층 갤러리에서 진행되며 도민들의 전시관람 편의를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청사를 개방한다.

전북교육청은 4월 한 달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의 달'로 정하고 '애도와 기억'을 주제로 토크한마당, 작품전시회, 추념 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다.

/정해은기자

중학교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46팀 지원

전북도교육청이 중학교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영방안 등을 연구하는 교사연구회 46팀을 공개모집해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교사의 수업역량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자유학기와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를 높이기 위한 자료 등을 발굴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중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46개 연구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들 연구회는 앞으로 ▲교육과정 운영 ▲수업 및 평가 ▲자유학기 활동 ▲일반학기 연계 등을 분야별 연구를 하게 된다.

교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유학기제 교육 자료 개발·공유 및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수업 및 평가 분야는 19개팀 가량이 참여해 학생 수준을 고려한 참여형 수업 자료 개발, 과정 중심의 평가방안, 평가결과 기록 등을 연구하게 된다.

또 23개팀은 학생의 희망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 운영방안을 연구하고 4개팀은 자유학기제와 일반학기 연계방안 등을 연구하게 된다.

/정해은기자